



이름 _____

로디는 끊어진 그네를 사진과 함께 알렸고, 몇 주 뒤 그네가 고쳐졌어요. **우리 학교 가는 길**에도 고쳐졌으면 하는 곳이 있나요?

제안 고쳤으면 하는 곳을 그려서 전하기

1 학교 가는 길이나 놀이터에서 위험하거나 불편한 곳은 _____ 예요.
찾으러 혼자 나가지 말고, 매일 지나가며 본 곳을 떠올려요.

2 두 모습을 그려요.

지금 모습

바뀌면 좋을 모습

3 이곳 때문에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? _____



나

우리 집

우리 반

우리 동네

내보내기 반 친구들 그림을 모아 선생님과 함께 **교장 선생님께 전해요.** 전한 날 _____ 월 _____ 일. 받은 답: _____



이곳은 왜 아직 안 고쳐졌을까?

어른들에게도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. 생각나는 이유: _____

EP38 온라인 청원으로 세상 바꾸기

38

Q 이 활동에서 일어나는 리터러시

사건 → 실천

영상은 «청원하면 고쳐진다»로 끝나지만, 카드는 아이가 실제로 본 곳을 그려 **실제 받을 사람**(교장 선생님)에게 전하는 데까지 갑니다. 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배움이에요.

여러 양식이 겹침

본 것 떠올리기, «지금»과 «바뀐 모습» 그림, 한 줄 설명, 받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. 그림도 제안서입니다.

누구의 목소리

3번 «힘든 사람은 누구일까»와 마지막 «왜 아직 안 고쳐졌을까»는 제안을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이끄는 질문입니다.

→ 진행 흐름 (2차시 + 답 기다리기)

1차시

찾기

영상 1분 → 학교 둘레 지도에 «불편한 곳» 스티커 붙이기 → 한 곳 고르기.

2차시

그리기

1~3번. 모듬끼리 그림을 보고 «무엇이 바뀌었지?» 말해주기.

이후

전하고 기다리기

반 그림을 모아 교장 선생님께. 답이 오면 반에 붙이고, 안 와도 «왜 안 올까»가 다음 수업.

3~4학년이라면

동네 창구로

보호자와 사진·지도 거리 사진으로 증거를 모으고, 관리사무소·구청 민원 창구·어린이 의회 중 받을 곳 고르기.

🔊 영상 마지막 나레이션을 바꾼다면

지금: «불편한 걸 보면, 공식 창구에 또렷하게!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힘이 돼요.»



제안: «로디의 그네는 고쳐졌어요. 여러분 동네에서 고쳐졌으면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?»

⚠️ 조심할 것

- 아이가 사진을 찍으러 혼자 길에 나가지 않게 해 주세요. 1~2학년은 기억으로 그리기만 합니다.
- 국민청원 같은 공식 온라인 청원은 대개 성인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. 반 밖 창구로 보낼 땐 보호자·교사 이름으로.
- «고쳐지지 않았다»가 실패가 아니라는 걸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. 답이 없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.

🔗 이어서 쓰기

- 71화 «데이터로 그린 우리 동네»: 통계 사이트(KOSIS)의 동네 숫자를 제안서 근거로 붙이기.
- 79화 «온라인 투표의 힘»: 반에서 여러 제안 중 하나를 투표로 고르기.
- 「우리 동네 이야기꾼」 프로젝트의 사회적 참여 차시로 바로 쓸 수 있어요.